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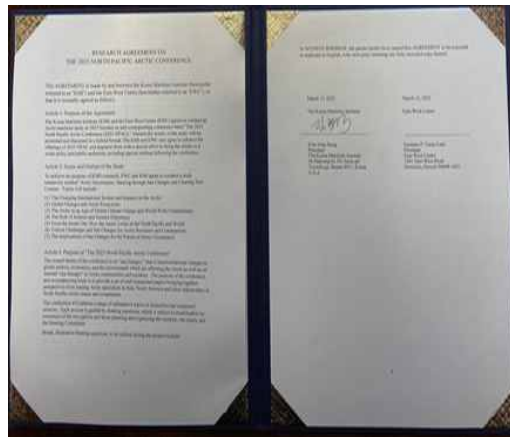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NPAC 등 협력사업 논의)						
관련사업 (예산항목)	<b>○ 출장목적</b> : 미국 MOU 협력기관인 동서문화재단(EWC)와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 개최 및 태평양소도서국가 협력 방안 등 협의 <b>○ 관련사업</b>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3.01.01. ~ 2023.12.31.)						
출장기간	2023.03.12(일) ~ 2023.03.15(수) (2박 4일) * 기내 1박			출장지	미국(하와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3.12 (일)	인천(20:35) → 호놀룰루(09:30)	항공 이동		KE 053		
	03.13 (월)	오전 : EWC 총장 오후 : NPAC 준비위원회	협력 논의 2023 NPAC 협의		차량 이동		
	03.14 (화)	호놀룰루(11:45) →	항공 이동		KE 054		
	03.15 (수)	인천(17:45, +1일) → 부산(20:40)			KE 1421		
출장성과	<b>○ 출장목적 달성 정도</b> - EWC 및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 방안을 예정대로 수행함 <b>○ 주요 성과</b> - EWC 총장 등 고위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NPAC 개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향후계획	<b>○ 출장 성과 공유 계획</b> - NPAC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와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 예정 <b>○ 정책화 등 활용 계획</b> - 극지활동진흥계획의 실행에 기여하고 북극이사회의 책임 있는 오피서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NPAC 등 협력사업 논의)
업무①	(03.13) 오전 EWC 총장 면담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WC 총장 면담</li> <li>- 참 석 자 : 김종덕 원장님(면담자), 김민수 본부장(서기), Suzanne (Suzy) Puanani Vares-Lum 총장 등 10명</li> <li>-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EWC 협력 방안 논의</li> <li>· 태평양 도서국 협력 방안 논의</li> <li>· NPAC 등 북태평양 북극 협력 방안 논의</li> </ul> </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WC 연구부장 및 NPAC Steering Committee 업무 협의</li> <li>- 참 석 자 : 김종덕 원장님(면담자), 김민수 본부장(서기), Jeff Hare 연구부장, Dr. Charles Morrison, Dr. Nancy Lewis, Jaymen</li> <li>* Suzanne (Suzy) Puanani Vares-Lum EWC 총장은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해 회의 불참하고 대신 연구부장 참석하여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후에 예정인 회의를 'Working Lunch' 형식으로 점심도시락을 먹으며 진행하였음</li> <li>-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EWC 협력 방안 논의</li> <li>- KMI-EWC 간 2023년 '(연구협약서) Research Agreement' 서명</li> <li>- NPAC 개최를 통해 KMI와 EWC가 맺어온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태평양도서국문제, 해양안보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ul> </li> <li>· 태평양 도서국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 도서국은 현재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해양환경, 어업자원고갈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교육, 보건, 웰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 경험 중임</li> <li>- KMI는 태평양 도서국 문제에 대해 아시아와 서양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EWC와 컨퍼런스 정례 개최 추진할 것을 제안. 특히 KMI는 유엔해양법협약, IUU어업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li> <li>- EWC는 현 EWC 총장이 태평양도서국과 해양안보 문제에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태평양도서국과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봄</li> </ul> </li> <li>· NPAC 등 북태평양 북극 협력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AC의 미래비전과 미션 관련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Statement' 개발에 대해 합의</li> <li>- 'Conference'에서 'Consortium'으로 변화에 합의: EWC와 KMI를 중심으로 참여기관 확대 (아시아와 서구 기관의 참여 균형), 특히 KMI 중심으로 아시아 기관의 확대 모색. (Steering Committee 포함 모든 NPAC 활동 참여)</li> <li>- 연중 NPAC 개최 지속하되, 현재와 같은 형식 유지하면서 대중(public)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하다는데 공감</li> <li>- 새로운 활동과 간행물 발간에 공감. 특히 온라인 패널 토론, NPAC 주제와 관련된</li> </ul> </li> </ul>

위탁 연구, 소셜미디어 활동, NPAC 프로시딩스 플러스 서적, 보고서, 논문 등으로 확대

-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개편에 공감. 기존: 참여기관 대표와 전문가(세대, 성별, 전문성 등 고려)로 구성되었으나, 개편을 통해 아시아, 원주민, 차세대 전문가, 활동가(practitioners)를 새 회원으로 우선 고려, 임기제 도입, 운영위원회 내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또는 기금모금위원회(committee on fund-raising)와 같은 소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
- 다양하고 포용적인 참여 보장에 합의. 나이, 성별, 국적, 원주민 등을 고려해 다양한 참여 보장, 특히 아시아에서 검증받은 참여자 확대를 우선 고려
- 프로그램 관리, 사무국, 기금 기반 강화에 공감. 특히 NPAC 사무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1) 컨소시엄 회원 기부금, (2) 재단 제안, 이 경우 대부분 활동은 기후 변화 영향 또는 원주민 및 초기 경력 참가자 유치와 같은 특정 활동에 초점, (3) NPAC 목표 및 관심사와 일치하는 정부 출자, (4) 북태평양-북극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잠재적 기업 및 개인 기부자 등을 고려
- Steering Committee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관련해 논의
  - : 문제점) 작년 활동에 대한 원고 자문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음. 이와 관련해 모든 steering committee 멤버에 자문비 지급 건에 대해 긍정적 검토.
  - : 대안) KMI는 이에 대해 1) KMI가 매번 회의마다 자문료 지급, 또는 2) 모든 steering committee 멤버와 개별 계약서 체결해서 연간 총액으로 진행



업무②	(03.13.) 오후 EWC 한국학 연구소 면담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WC 한국학 연구소 업무 협의</li> <li>- 참 석 자 : 김종덕 원장님(면담자), 김민수 본부장(서기), 백태웅 교수(소장)</li> <li>-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NPAC과 연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방안 협의</li> </ul> </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WC 한국학 연구소 업무 협의</li> <li>- 참 석 자 : 김종덕 원장님(면담자), 김민수 본부장(서기), 백태웅 교수(소장)</li> <li>-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학 연구소의 협력 현황</li> </ul> </li> </ul>

- 현 소장은 2018년부터 소장직 수행, 2024년 여름까지 소장직 임기
- 과거 반다이코 교수, 인하대 이석우 교수가 EWC에서 행사 개최 경험
- 하와이 대학 colleg of language and culture – Asian studies, Pacific studies center 있음. 특히 Pacific studies center는 연구와 강의 추진. 주정부 펀딩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음. 이미 진행되는 Pacific Island 사업을 하고 있음. The School of Pacific & Asian Studies.
- EWC와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는 없음. 법제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협업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협력 추진 중
- 하이 대학 8개 지역학 연구소 중 한국학연구소가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
- 안보(통항 등) 관련해서 동남아 연구소에서 관심. 아시아안보(인도-태평양 안보 이슈) 관련 'Asian Studies' 운영됨. 인도-태평양 해양과 수산, 안보 관련해서는 이 센터와 협력 가능 => 이 경우 펀드, 주제 선정에 대해선 고민 필요

## 2) 한국학연구소 소개

- 19세기 선교사가 한국연구에 대해 관심-하와이대학교에서는 1954년 한국언어강의 시작
- 1960년대와서 처음으로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함
- 하와이 대학, 하버드 대학 등 몇 개 대학에서 시작, 1972년 하와이대학에서부터 한국학연구소 개소하고 한국학 시작, 현재 20여 개 이상 한국학 센터가 미 대학 내에서 개소 시작, 개소 시 5명 정도로 시작 – 1974년부터 1980년 대 되면 별도 건물을 완성. 처음 15명 교수로 시작. 현재 7번째 소장으로 재직 중
- 국제교류재단, 개인 후원으로 유지 – 장학금, 발간물,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개최. 4층 서재에는 유물, 책 자료, 초기 이민 자료, 북한 자료 등 소장
- 한국학중앙연구소와 10년 프로젝트 추진 – 이민, 교육, 남북관계, 통일 등 연구, 2022년에는 50주년 행사 개최
- 학술, 전략연구, 장학금, 방문학자 등 프로그램 운영이며, 현재 디지털 컬렉션 작업 중

## 3) KMI와 협력

- KMI는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기후변화, 산업적 협력 등을 주제로, 올 해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예정이며, EWC와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컨퍼런스 개최 추진할 예정임. EWC 내 도서국가 전문가 활용하고, 틀이 잡하면 하와이대학 전체와 정례적인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한국학연구소는 직접 태평양도서국 문제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은 타 지역연구소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여러 기관과 NPAC 행사 전 후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앞으로 협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면 좋을 듯
- KMI는 올 8월 NPAC 행사 전에 좀 일찍 방문해서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Pacific Island 담당 센터와 미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향후 한국학연구소와 KMI 간 여러 이슈에 대해서 협력 추진 가능성을 염두할 것이라고 제안. 특히 현재 미국과 태평양 이슈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협력파트너 찾기가 어려움. 예전 UW, 로드아일랜드와 협력을 추진했는데 현재 협력 관계가 중단. 아시아를 이해하는 그룹과의 논의가 필요. 하와이 대학 지역학연구소와 협력 추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8월 16~23일 사이 리셉션 개최 계획 포함· KMI-EWC 협력 방안 논의 지속하기로 합의

